우직한 풍요의 동물…인간 본성 상징

[특집] 불교와 소

풍요 · 의로움 · 우직함의 대명사
농사 관장하는 신으로 숭배 대상
인간게으름 경책하는 수단이기도
불성 등 인간 진면목으로도 비유
고승들 법호도 소관련 명칭 많아
사찰창건 연기 설화에 많이 등장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2021년은 신축년(辛丑年) 소의 해다. 십이지의 두 번째 자리에 해당하는 소는 북북동 방향과 음력 12월, 그리고 새벽 1~3시를 지키는 방향신이자 시간신이다. 풍요, 부유함, 길조, 의로움, 자애, 여유, 우직함 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특히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서 소는 단순한 가축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힘든 농사일의 주역일 뿐 아니라 서민들의 유일한 운송 · 이동수단이기도 했으며, 재산으로서의 가치 또한 뛰어났기에 더할 수 없이 소중한 존재였다. 때문에 소는 예로부터 부를 불러오고 화를 막아주는 존재로도 여겨져 왔다. '꿈에 황소가 집으로 들어오면 부자가 된다' '설날 새벽 송아지 우는 소리는 풍조(豊兆)'라는 속설도 이런 관념에서 유래한 것이다.

무엇보다 소의 우직하고 성실한 면모는 인간의 게으름을 경책하는 방편으로도 활용돼 왔으며, 여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영물로 인식되기도 했다. '소가 말이 없어도 열두 가지 덕이 있다'는 말은 우리조상들이 소의 이러한 성품을 높이 샀던 것을 보여주는 한 예다.



사진제공=국립민속박물관

그렇다면 오랜 세월 이 땅의 정신문화를 주도해 온 불교는 소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불교에서 소는 인간의 본성을 뜻한다. 초기경전인 〈증일아함경〉(목우품)에 이와 관련한 부처님 가르침이 전한다. 부처님은 소치는 사람이 소를 잘 기르기 위해 알아야 할 열 한 가지 법에 빗대어, 수행자가 깨달음을 위해 성취해야 할 도리를 설하셨다. 소를 치는 것과 같이 불성을 닦고 수양하라는 가르침이다.

우리나라 사찰의 법당 벽화로 흔히 접할 수 있는 '심우도'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심우도는 인간의 진면목인 불성을 소에 비유하고, 소를 찾아가는 과정을 10단계 깨달음의 과정으로 묘사한 그림이다.

수행자가 자신의 본성을 찾아나서는 첫 단계인 심우(尋牛)에서부터 본성의 자취인 소의 발자국을 발견하는 견적(見跡), 견우(見牛), 득우(得牛), 목우(牧牛)의 과정을 거쳐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우귀가(騎牛歸家)의 그림이 있다.

심우도는 선재동자가 소(자신의 본성)를 찾아나서는 심우(尋牛)로 시작된다. 선재동자는 소의 자취를 찾아 헤맨 끝에 소를 발견하고 고삐를 매 올라타 길들인다. 이것이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불성을 꿰뚫어 보고 수행을 통해 길들이는 다섯 번째 단계 목우(牧牛)다.

선재동자는 이어 소도 사람도 모두 실체가 없는 공임을 깨닫는 인우구망(人牛俱忘)을 거쳐 수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지팡이에 큰 포대를 메고 육도중생의 길(입전수수)로 들어선다. 이는 불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수행을 통한 깨달음, 그리고 중생구제에 있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보조 국사 지눌의 호가 '소 치는 사람'을 뜻하는 목우자(牧牛子), 경허 선사의 호가 '깨어있는 소' 성우(惺牛)인 것도 눈여겨 볼 만 하다. 또 만해 한용운은 자신이 머물렀던 집을 '소를 찾는 곳'이라는 뜻의 심우장(尋牛莊)이라 이름 짓기도 했다. 이처럼 소는 오랜 세월 동안 고승과 수행자들의 꾸준한 관심을 받으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어왔다.

사찰 창건설화 중에서도 소와 관련한 일화가 전한다. 대표적인 사찰은 공주 갑사, 해남 미황사, 보은 법주사 등으로, 갑사에는 대웅전 중창불사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정유재란(1597년)으로 소실된 갑사를 재건하기 위해 인호스님을 비롯한 대중 스님들이 대웅전복원에 나섰다. 그러나 그 원력에 비해 공사의 진행은 너무나 더뎠고, 불사에 필요한 자재조차 구하기가 힘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인호 스님의 꿈에 소 한 마리가 나와 "불사를 도울 것이니 걱정 말라"며 절 안으로 성큼 들어선다. 꿈에서 깬 인호 스님이 방문을 열자 문 밖에 그 소가 서있었다. 이후 소는 매일 같이 향나무와 기와 등 법당 중건에 필요한 자재를 구해와 힘을 보탰다. 소의 도움으로 공사는 원만하게 진행됐고 마침내 불사의 회향을 앞둔 어느 날, 기력을 다한 소는 지쳐 쓰러진 채로 숨을 거뒀다. 갑사 스님들은 소의 공덕을 기려 탑을 세웠는데, 그 탑이 바로 갑사를 오르는 길목에 지금껏 자리 잡고 있는 '공우탑(功牛塔)'이다.

법주사가 위치한 속리산은 '속세를 떠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 명칭의 유래에 대해 법주사를 창건한 진표율사와 관련된 설화가 전해진다. 속리산은 당시 구봉산으로 불렸는데, 신라 선덕왕 5년 진표 율사가 법주사를 건립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러자 인근 논밭에서 일을 하던 소들이 일제히 율사를 향해 무릎을 꿇고 경의를 표했다. 이에 농부들이 감명 받아 속세를 버리고 율사를 따라 출가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사람들은 구봉산을 속리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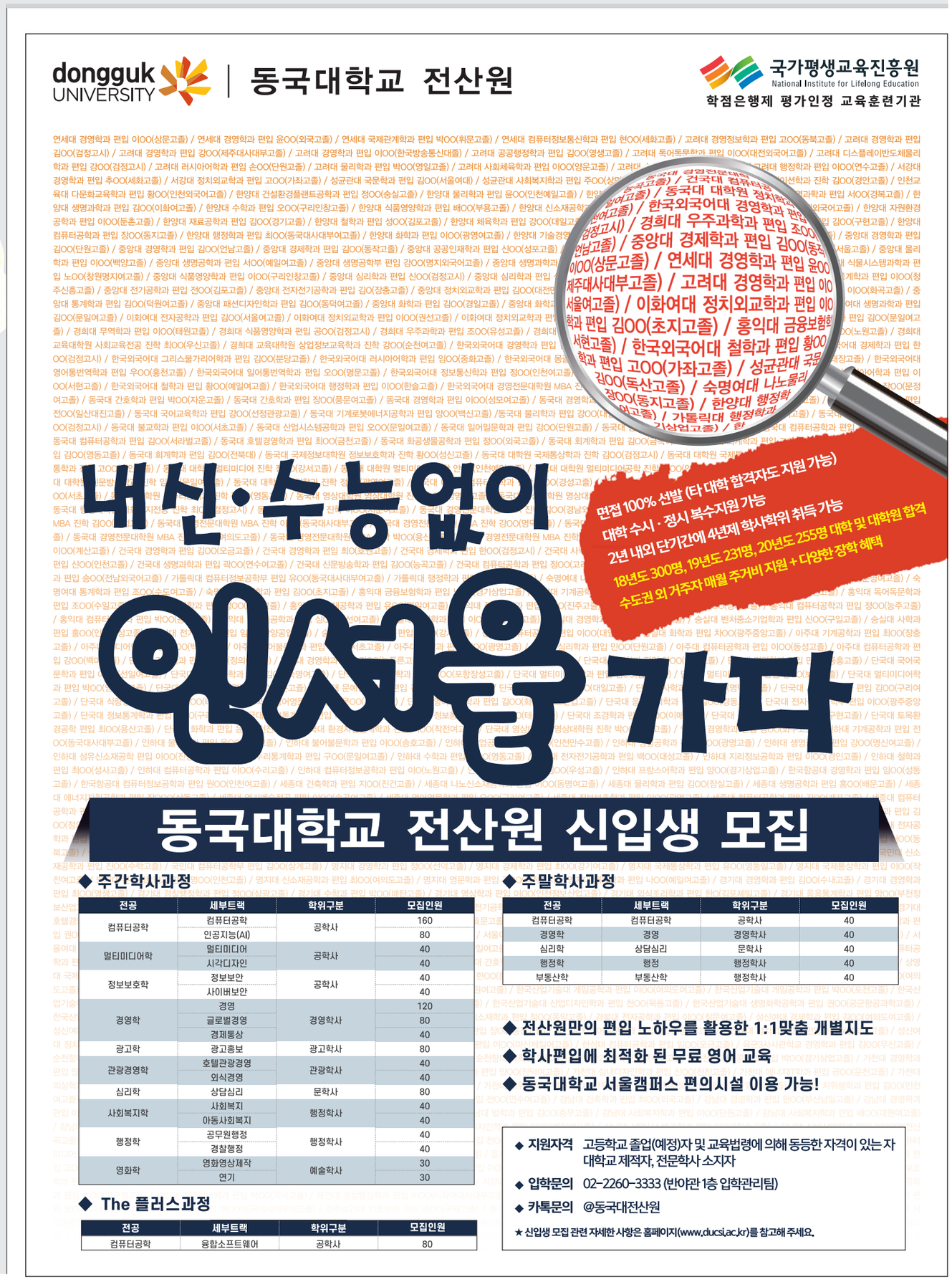
미황사의 창건설화는 조선 숙종 18년 병조판서 민암이 쓴 사적기를 통해 전해내려 온다. 신라 경덕왕 8년의 어느 날 땅끝마을 사자포에 화엄경, 법화경 등의 경전과 문수 · 보현보살상이 담겨 있는 금합, 그리고 검은 소를 실은 돌배가 나타났다. 같은 날 밤 의조화상의 꿈에 금인(金人)이 나타나 "나는 인도 우전국의 왕인데 불상과 경전을 소에 싣고 가다가 소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 곳에 절을 짓는다면 국운과 불교가 크게 일어날 것이다"고 일렀다. 의조 화상은 이를 그대로 따랐고, 소가 멈춘 곳에 절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의 미황사다. 특히 미황사의 창건설화는 불교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인도에서 바다를 통해 유입됐다는 해로유입설을 뒷받침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신축년 불교 소사

- △617년 신라 원효대사 탄생
- △665년 신라 고승 혜통 당에서 구법하고 귀국
- △689년 승려 전길(詮吉) 등 50여명, 일본에 건너감.
- △725년 법천사 창건
- △809년 해안사(海眼寺, 조선 인조 때 은해사라 개칭)를 창건, 원찰(願刹)로 삼음.
- △833년 진주 연지사종 주성
- △929년 천축 삼장법사 마후라 내왕
- △953년 황룡사탑 벼락 맞고 소실
- △989년 여가, 공사 · 한인경 등과 함께 송나라에서 대장경을 가지고 귀국.
- △1109년 예종(睿宗) 2월 29일 및 9월 24일에 각각 회경전에서 백좌회(百座會)를 개설, 중외(中外)에서 승려 3만을 공양.
- △1229년 정각 지겸 스님 화엄사서 입적.
- △1289년 보각국존 견명 스님, 인각사에서 입적
- △1397년 흥천사 준공, 선종의 수찰로 삼음
- △1409년 일본 승려 주호(周護), 대장경 요청.
- △1457년 세조 〈능엄경〉 〈법화경〉 등을 수교하고 함허당 〈금강경설의〉 교정.
- △1469년 경국대전 초안 완성.
- △1553년 양종 시경승 2천 5백여명에게 도첩을 줌
- △1877년 일본 진종 대곡파 본원사 조선개교사 오촌원심 방문
- △1889년 제2차 사찰승니(寺刹僧尼) 비호령(庇護令).
- △1913년 택성 김탄허 스님 탄생. 5월 25일 만해 한용운 〈조선불교유신론〉 간행. 11월30일 월간 '해동불보' 창간
- △1925년 조선불교청년회 창립. 9월1일 총독부, 해인사 대장경 인출시작
- △1949년 맥아더사령관, 일제 침탈 문화재 반환
- △1961년 대법원, 비구승단 인정. 5월 22일 운허 스님 불교사전 간행. 6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승니법 제정 공포.
- △1973년 전국 유명 사찰에서 관람료 징수 시작.

dongguk UNIVERSITY | 동국대학교 전산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



◆ 주간학사과정

전공	세부트랙	학위구분	모집인원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공학사	160
	인공지능(AI)		80
멀티미디어학	멀티미디어	공학사	40
	시각디자인		40
정보보호학	정보보안	공학사	40
	사이버보안		40
경영학	경영	경영학사	120
	글로벌경영		80
	경제통상		40
광고학	광고홍보	광고학사	80
관광경영학	호텔관광경영	관광학사	40
	외식경영		40
심리학	상담심리	문학사	80
사회복지학	사회복지	행정학사	40
	아동사회복지		40
행정학	공무원행정	행정학사	40
	경찰행정		40
영화학	영화영상제작	예술학사	30
	연기		30

◆ 주말학사과정

전공	세부트랙	학위구분	모집인원
컴퓨터공학	컴퓨터공학	공학사	40
경영학	경영	경영학사	40
심리학	상담심리	문학사	40
행정학	행정	행정학사	40
부동산학	부동산학	행정학사	40

◆ The 플러스과정

전공	세부트랙	학위구분	모집인원
컴퓨터공학	융합소프트웨어	공학사	80

◆ 전산원만의 편입 노하우를 활용한 1:1맞춤 개별지도
◆ 학사편입에 최적화 된 무료 영어 교육
◆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편의시설 이용 가능!

◆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교육법령에 의해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대학교 제적자, 전문학사 소지자
◆ 입학문의 02-2260-3333 (반야관 1층 입학관리팀)
◆ 카톡문의 @동국대전산원

★ 신입생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ducsi.ac.kr)를 참고해 주세요.